



# 군종주보

2024년 4월 21일(제1190호)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기”

가톨릭교회는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로 보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하며 하느님께서 사제 성소, 수도 성소, 혼인 성소 등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특별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한 이들과 그 삶을 지향하는 이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이 말씀을 듣고 손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아니면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답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하루하루 들으면서 주님께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 대한 감각이 깊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알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연히 목자는 양들을 알지만, 양들도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보시고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루하루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자신의 성소에서 주님께 충실히 응답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신용관(시도요원) 신부  
충경(제35보병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본보송

사도 4,8-1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요한 3,1-2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0,11-18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 열세 번째 시집

어떤 신입 교우가 그들의 가엾은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자는 만일 그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귀의 괴롭힘에서 해방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교우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서 이 가족은 훨씬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기도와 교리 문답을 배우면 조금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교리 공부를 조금 게을리 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다시 그전처럼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귀 자신이 그들의 신심을 단련시켜 더욱 열심히하도록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영세한 후에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지금은 건강하게 잘살며 기쁨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편지가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올 일 년 동안에 저는 2,867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어른 171명에게 세례성사를 주었으며, 대세받은 어른 17명에게 세례성사의 보례를 하였고, 181명의 신자를 전교회(傳敎會)에 가입시켰습니다. 제 관할 구역의 신자는 모두 합해서 4,075명이요, 예비 신자는 108명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성사를 집전했을 때, 배교자들이 포졸들을 데리고 저를 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다가 신입 교우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교자들은 그 후에도 교우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모와 방법을 연구하며, 천주교의 이름을 이 조선에서 완전히 뿌리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어떤 고관들한테 가서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섬멸할 권한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피스럽게 퇴짜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비록 천주교에 대한 증오심은 꺾이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그들의 세력은 모두 꺾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왜! 여기에



여기에 왜?

그 답은 분명 알고 있지.

여기서 무얼?

다만, 망설이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누구와?

이제 어찌할 건가?

그리 외치며,

하늘만 볼 것인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상화이야기

## 이그네스 데이(하느님의 어린양)



주르비란(1598년 ~ 1664년) / 163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38 × 62cm / 미드리드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일견 테이블처럼 보이는 회색의 평평한 곳에 한 마리의 양이 검은색 배경을 뒤로 한 채 모든 다리가 묶인 채로 놓여있다. 언뜻 보면 정물화 장르의 양식을 띠는데, 일반적 정물화에서 동물은 이미 도살된 후나, 죽은 채로 그려진 것과 달리, 본 작품에서 양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이다. 다만, 곧 도살되거나 희생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양의 눈빛에서 보듯이, 저항이나 반항의 기미는 없고 순종하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는데, 동시대 인물들이 이 그림을 봤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어린양에 빗대어 그린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 그림은 정물화의 양식을 빌린 종교화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당신의 수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양에 빗대어 그린 상징성이 깊은 작품인 것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

김은혜(엘리사벳)

###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진혜해군 김완수 신부

#### ◆ 교구장 통장

- 군중교구 제2대 교구장 이기현 주교 감사미사  
때·곳: 4월 21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천주교 군중영성센터 축복식  
때: 4월 23일(화) 11:00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4년도 춘계 상임위원회의

때·곳: 4월 25일(목) 15:00, 군중교구청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